

대민봉사 발대식 및 환경청결 운동



부산지부(권평준)는 지난 8월 17일, 경남 산청군 생초면 경호 강 상류와 강정 유원지에서 부산지부 및 경남지회 운영위원(부부동반)과 회원들 41명이 참석하여 대민봉사 발대식 및 환경 청결 행사를 가졌다.

권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환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생각하여 환경과 자연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회원들은 약1톤가량의 오물 줍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이날(17일)을 환경 청결의 날로 정하여 대민봉사 발대식을 가졌다. 아울러 자연환경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리며 회원간의 돈독한 단합을 과시 하였다.

